태양광·배터리 등 미래먹거리 공략… 주택 2.6만호 공급

태건설, 飛上 2020 전략

GS건설

경북과 '포항 규제자유특구' 협약 1000억 투자 니켈 등 생산시설 조성 '한남하이츠'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 올 2.5만여 가구 자이 아파트 공급

GS건설은 허창수 전 GS그룹 회장의 아들인 허윤홍 사장이 지난해 말 새 사령탑에 임명된 후 모듈러주택, 태양광, 배터리 등 신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올해 2만5000여가구의 자이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힌 데이어 최근 한남하이츠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초부터 낭보를 이어가고 있다.

◆배터리 재생 사업 진출, 허윤홍 사장 진두지휘

GS건설은 최근 미래 산업으로 불리는 '배터리 재생'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 9일 전기차 보급에 따른 2차 전지 재활용 관련 사업을 위해 경상북도·포항시와 함께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투자협약식'을 진행했다. GS건설은 2022년까지 1차로 약 1000억원을 투자해 2차 전지에서 연간 4500톤(t)의 니켈·코발트·리튬·망간 등의 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2차 투자를 통해 연간 1만여톤생산 규모로 사업을 확대한다.

또 허윤홍 GS건설 사장은 모듈러주



허윤홍 GS건설 사장.

택과 관련해 선진국 업체와 인수합병 (M&A)을 준비하고 있다. 모듈러주택 이란 기본 골조, 전기 배선 등 집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레고 블록'을 맞추듯 조립만 하는 방식으로 짓는 주택이다. 일본과 미국·유럽 등에선 활성화 돼 있지만 국내는 아직 형성기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선 모듈러주택 사업 규모가 2022년 2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GS건설은 자산운용(지베스코), 중소규모 정비사업·공기청정시스템(자이S&D), 스마트팜, 태양광 발전소 등의 신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참치·연어를 양식하는 수산양식업과 엘리베이터 사업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사장이 이끄는 100여명 규모의 신사업추진실이 주도한다.

◆GS건설, 한남하이즈 재건축 수주

GS건설은 또 현대건설을 꺾고 서울



'한남자이 더 리버' 조감도.

성동구옥수동 한남하이츠재건축공사 시공사로선정됐다. 한남하이츠재건축 조합은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옥수교 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GS건설은 281표(55.1%)를 얻어 228표(44.8%)를 얻는 데 그친 현대건설을 제쳤다. 총회 에는 총 조합원 557명 중 510명 (91.6%)이 참여했다.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은 53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헐고 지하 6층·지상 20층, 10개 동 790가구 규모의 새 아파 트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3.3㎡당 599만원으로 총 3287억원이다.

한강조망이가능한데다한남대교를 통해 압구정동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위 치에 있어 강북권 최대 사업장 중 하나 로 꼽힌다. 행정구역상 옥수동이지만 용산구 한남동과 맞닿아 있어 강북 내 손꼽히는 부촌인 한남동 생활권을 공유 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GS건설은 시공사 입찰 투표에 앞서 한남하이츠를 '한남자이 더 리버'로 재 건축한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한강 변 입지의 장점을 살려 한강 조망이 가 능한 가구를 305가구까지 늘린다는 내 용을 담았다.

◆올해 주택 2만5641가구 공급

GS건설은 올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에 2만5641 가구의 자이 아파트를 공 급한다.

2020년 공급계획을 지역별로 살펴보면서울약6500여가구(25.6%), 수도권1만1700여가구(45.9%) 및 지방7300여가구(28.5%)를 공급한다. 올해는 부산, 대구, 속초, 울산, 광양 등 서울, 수도권에 집중됐던지난해와 달리지방여러곳에도자이아파트가 공급된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건축·재 개발등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 량은 약 1만1600여가구로 전체 물량의 약 45.5%, 외주사업은 1만900여 가구 로 전체의 42.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지난 해 GS건설이 매입한 인천 송도 6공구 A10블록 부지에 들어설아파트를 연말 분양 계획인 점이 눈에 띈다.

외주사업 가운데 속초 디오션자이, 고양덕은지구 A4, A6, A7블록 등이 눈 여겨볼 만한 단지다.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61-1번지 일 원에 들어서는 속초시 최고층 아파트 속초디오션자이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3층 3개동 전용 84~131㎡ 총 454가구 규모로 속초항과 인접해 대부분 가구에 서 동해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도 심에 위치해 각종 기반시설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장점 등 조망과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속초내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을 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개선으로 외부 투 자자의 관심도 높다.

고양시 덕은지구 3개 블록에 총 1600 여 가구 규모의 자이 아파트가 공급된 다. 덕은지구 A4블록에 지하2층~지상 24층 6개동 전용 84㎡~99㎡ 702가구, A7블록에 지하 2층~지상24층 5개동 318가구, A6블록 지하2층~지상24층 7 개동 62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원 영통구에 들어서는 영 통자이, 울산서부동공동주택 등 외주사 업뿐만 아니라, 흑석3구역, 수색6,7구 역, 장위4구역 등 서울시내 도시정비사 업으로도 자이 아파트가 공급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P2P대출 투자, 과도한 이벤트업체 조심

Q.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P2P대출 투자에 관심이 생겼습 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P2 P대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투 자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A. P2P 대출이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필요한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 스를 의미합니다.

아직 P2P 대출에 투자하기 전이라면 먼저 믿을 수 있는 P2P업체를 선택하세 요. 금융정보포털 '파인'의 '등록 대부 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 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업체의 홈페 이지에서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 템'이 도입되어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혹시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라면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고 재 무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 니다.

투자단계에서는 차주가 자기자본을 충분히 투입했는지, 그자금의 출처는 어 디인지,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투자하려는 상품이 투자자를 재모 집하는 상품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 니다. 신규상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 질은 투자자를 재모집해 부실을 돌려막 으려는 상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P2P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업체는 손실이 생겨도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업체의 손실보전 여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투자가끝났다면이후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세요. 특히 부동산 관련 P2 P대출의 경우업체의 공시사항, 등기부 등본을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희주기자 hj89@



호반그룹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 '행복꾸러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반그룹

호반그룹, 설맞이 행복꾸러미 나눔활동

임직원 봉사단, 가족 등 60여명 떡국 등 소외이웃 위해 선물 포장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 나눔이'는 2020년 첫 봉사활동으로 소 외된 이웃들과 설날 선물을 나눴다.

19일 호반그룹에 따르면 '호반사랑 나눔이' 봉사단은 지난 18일 서초구자 원봉사센터와 함께 호반파크 2관(서 초구 우면동 소재)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행복꾸러미' 나눔 활동을 진행 해다

이번활동은호반건설경영부문임직 원, 가족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행복 꾸러미'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설 날선물이다. '호반사랑나눔이'는 '행복 꾸러미'에 떡국 떡, 약과, 김, 간장, 참 치 캔, 두유 등의 물품들을 담아 포장했 다. 이날 만든 '행복꾸러미'는 서초구 홀몸 어르신들, 저소득가정 등 200가구 에 전달된다.

호반그룹 사회공헌 담당자는 "2020년 첫 봉사활동으로 어린 자녀들도 함께할 수 있는 설날 선물 만들기를 준비했다"며 "따뜻한 마음이 담긴 '행복 꾸러미'가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행복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지난 14일 '호반그룹사회공헌위원회'를출범하고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진행해 온 공익재단들과호반사랑나눔이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호반호텔&리조트, 플랜에이치벤처스등 각 계열사의 자원을 연계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국내 증시 호재에 주식형펀드 2.96% 상승

주간펀드동향

중국의 한한령 해제 가능성, 미·중 무역합의 등 대외적 호재와 '데이터 3 법' 통과라는 국내 호재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1월 10일~16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2.96% 올랐다.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며 관련주가 크 게 상승했다.

해당기간국내주식형펀드자금은 인 덱스펀드를 중심으로 4000억원 유출됐 다. 한동안 지속하던 순유입세가 반전 하면서 순자산은 1조5930억원 늘어나 는 데 그쳤다.

해외주식형펀드는 1.36% 올랐다. 미·중 1차 무역협상의 영향에 신흥국지 역의 펀드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그 중 친디아 펀드가 4.18% 오르며 수위를 기록했다. 해외주식형펀드 순자산은 전주보다 3380억원 늘었다. 전주에 이어 자금유 출(30억원)은 있었지만 유출 규모는 감 소했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은 모두 인덱스주식기타형이 차 지했다. 이 중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 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펀드(6.21%)가 수위에 올랐다. 해외주식형에서는 인도주식형인 '미래 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C-p'가4.98%의 우수한성 과를 시현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